

## 百濟의 瓦·塼

朴 容 埴\*

### 目 次

- |                |                   |
|----------------|-------------------|
| I. 수막새 기와      | II. 무늬 벽돌         |
| 1. 연꽃무늬 수막새 기와 | 1. 公州 宋山里의 무덤 벽돌  |
| 2. 巴狀文 수막새 기와  | 2. 扶餘 外里出土의 方形 벽돌 |
| 3. 素文 수막새 기와   |                   |

百濟의 기와와 벽돌은 한낱 建築材로서의 素朴한 意味보다는 百濟의 造形文化의 發展過程을 說明하여 주고, 國際間的 文化交流類型과 그 關係를 밝혀주며 百濟의 造形美術의 막연한 編年研究에 그 絕對年代와 基準을 提示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正確한 遺蹟地名과 遺蹟址 등을 설정하여 주고, 百濟의 藝術的 價値와 性格을 立證하여 주는 歷史的인 考證資料로서 높이 評價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기와와 벽돌은 보다 소중한 게 다루어야 할 民族의 文化遺產인 것이다.

기와는 대체로 形態와 用途에 따라 구분되는데, 지붕을 이는 基本瓦가 되는 암키와와 수키와를 비롯하여, 이들 기와끝의 처마 끝을 장식하는 암막새 기와·수막새 기와가 있다. 막새 기와에는 여러가지 무늬로 장식된 것이 通例이다. 그리고 추녀마루와 용마루의 끝부분을 雄壯하게 마무리한 도깨비기와와 망새가 있는데, 이들은 建築의 壯嚴과 美的 裝飾效果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呪術的 意味도 內包하고 있다. 그 밖에 서까래막새 기와와 차꼬막이 등 다양하다.

벽돌은 건물의 바닥을 장식하는 바닥벽돌, 벽을 꾸미는 벽벽돌, 벽돌무늬를 造營하는 무늬벽돌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그 형태에 따라 方形, 長方形, 三角形, 箱子形 벽돌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와와 벽돌의 表面을 장식한 多樣한 무늬는 美術史研究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가끔 보이는 銘文기와나 벽돌에서는 여러 가지 歷史的 事實을 밝혀 주고, 文獻的 史料를 補完하기도 한다. 本 研究에서는 무늬구성의 다양한 변천을 보인 수막새기와와 무늬벽돌 등을 중심으로 百濟 造形美術의 發展過程을 概觀 論議기로 한다.

\* 文教部 장학편수실장

## I. 수막새 기와

百濟의 수막새 기와는 造形原理上 初期의 具體的이고 說明的이며 寫實的인 연꽃잎의 構成形狀이, 熊津城(公州) 時代에서 泗泚城(扶餘) 時代로 내려가면서 核心的이고 集約的인 造形으로 發展되어 終局的으로는 象徴的이고 表記的인 概念만으로 移行되어 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基本瓦型에서 본래의 造形動機가 다른 段階의 무늬로 變改되어 새로운 瓦型創作으로 발전되어 갔다는 것이다.

百濟의 기와무늬는 初期의 北魏·高句麗系의 文化受容으로 構成되었으나, 政治的 變遷과 함께 中國 南朝系로 瓦型轉換을 보게 되었고, 이러한 外來瓦型의 複合的인 수용과 자극으로 形成된 백제의 기와 무늬는 國家社會의 安定과 自然環境 그리고 百濟人의 탁월한 造形本能의 반영 등으로 百濟瓦型을 開發하고 樣式化하였다. 이같이 해서 形成 發展된 百濟의 기와는 新羅와 日本의 百濟人에 의한 古代寺院造營과 더불어 外延的으로 擴大되어 그들의 基本瓦型으로 전수되고 발전하여 古來의 文獻上으로나 實地의 出土遺例로 立證되고 있다.

### 1. 연꽃무늬 수막새 기와

百濟의 造形文化는 一般的으로 佛敎美術의 基調 위에서 成立된 것이므로, 수막새 기와의 円形內區를 構成하는 支配的인 무늬 구성의 主題 또한 연꽃무늬이다. 內區의 연꽃무늬는 複合적인 외래문물의 수용과 展開過程에서 여러 類型의 造形的인 形態와 特徵을 갖추어 變遷하고 있다.

연꽃무늬 수막새 기와는 연꽃잎을 構成 裝飾하는 무늬 형태와 그 特徵에 따라

(1) 內區의 연꽃잎에 아무런 무늬도 장식하지 않은 이른바 無子葉蓮花文인 素瓣蓮花文瓦當

(2) 內區의 각 연꽃잎 중앙을 縱線帶로 2분하고 있음이 마치 稜線帶를 이룬 것 같은 稜線蓮花文瓦當

(3) 內區의 각 연꽃잎을 單子葉무늬로 장식 구성한 이른바 單子葉蓮花文인 單瓣蓮花文瓦當

(4) 內區의 연꽃 속에 忍冬무늬를 구성 장식한 忍冬蓮花文瓦當

(5) 內區의 연꽃에 암·수의 꽃술을 장식한 花蕊蓮花文瓦當

(6) 內區의 각 연꽃잎에 2개의 子葉 곧 複葉을 구성 장식한 複瓣蓮花文瓦當

(7) 內區의 연꽃잎 구성을 겹쳐진 연꽃으로 構成한 重瓣蓮花文瓦當

의 7個의 類型으로 크게 區別된다.

이들은 또 수막새 기와의 外區를 이루는 테두리의 構成과, 內區 연꽃의 具體的인 構成特徵에 따라 細分되어지고 있으나, (1)類型인 素瓣蓮花文瓦當이 그 主流를 이루는 基本瓦文이라고 할 것이다.

### 2. 巴狀文 수막새 기와

巴狀文 수막새 기와란 원형의 內區 무늬 구성을 中央의 子房 자리에 半球狀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마치 卍字를 부드럽게 展開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左廻彎曲시켜 巴狀文形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巴狀文 사이는 대체로 平面的으로 處理되었으나, 益山出土瓦 가운데에 볼륨을 높여 隆起構成한 例도 있다. 이같은 수막새 기와는 公州의 熊津城址와 扶餘의 扶蘇山城址, 益山の 彌勒寺址 등에서 數種 發見되고 있으나, 그 造形的 特徵은 共通된 形式을 하고 있다.

이 異例인 巴狀文기와는 卍字의 변형으로 구성된 것인지, 또 다른 造形物에서 개발된 形式인지 그 源流나 起源을 밝혀 百濟瓦型으로서의 形成過程을 考究하기가 힘든 瓦例이다. 그러나 百濟의 기와는 外來文物의 수용과 자극으로 형성되었고, 그를 다시 백제적인 조형으로 定着시켜 발전하였으므로, 이 瓦型의 경우도 高句麗의 4區形式의 瓦例를 造形上의 基本型으로 하고, 그 內區의 十字形만을 유연한 巴狀文으로 變形處理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公州의 熊津城址出土의 암키와 무늬에서 卍字를 찾아볼 수 있어, 어쩌면 卍字로부터 얻은 착상에 따라 巴狀文形式으로 曲線化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기와 무늬는 泗沘城時代 무늬벽돌의 하나의 基本型이 되어 그 造形的 發展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 例가 있으니, 부여 舊衙里寺址, 錦城山, 軍守里寺址, 扶蘇山城, 佳塔里와 扶餘 窺岩面 外里出土의 方形무늬벽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연꽃무늬는 수막새 기와의 주된 무늬로, 그리고 巴狀文은 百濟 벽돌무늬의 基本무늬로 각각 발전하였음을 그 造形的 變遷過程에서 살펴볼 수 있다.

### 3. 素文 수막새 기와

素文 수막새 기와란 수막새 기와의 円形 內外區에 아무런 무늬도 장식 구성하지 않은 이른바 素文瓦型이다. 따라서 円形 內區는 平面的으로만 處理되었고, 子房의 조성까지도 省略되어 異形瓦當의 특수한 造形임을 보게 된다.

이같은 特殊한 形式의 瓦例는 中國이나 高句麗 또는 新羅나 日本 등지에서 그 出土例가 아직 報告된 바 없어 比較研究의 對象資料의 制限을 받고 있으므로, 이 瓦型의 形成經緯研究는 무척 힘든 課題요 作業일 수 밖에 없다. 곧 單純·素朴한 무늬구성으로부터 複雜·多樣한 무늬 조형으로 발전하고, 다시 抽象적이고 表記的인 形式으로 변천하는 百濟瓦當의 一般인 造形原理가 이 瓦型에서는 適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瓦型 形成過程上 素文瓦當이 蓮花文瓦當이나 巴狀文瓦當의 形式보다 先行되는 것으로도 보기 힘들다. 그것은 出土地가 부여지역으로 限定되고 있음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瓦型은 外來文化의 受容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百濟瓦匠의 創意的인 瓦型 開發에서 얻어진 形式이거나, 아니면 瓦工의 우발적인 착상으로 된 瓦型일지도 모른다. 굳이 造形上의 瓦型을 논의한다면, 巴狀文과 그 子房까지를 대담하게 省略 處理한 과격적인 瓦例로 볼 수 있어, 巴狀文瓦의 形式化 또는 그 퇴역적 外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巴狀文瓦型을 基本型으로 하여 展開된 瓦·塼文에서 우리는 매우 對照적이고 相反된 造形變遷을 발견케 될 것이다.

지금까지 論議한 內容을 종합해 보면, 百濟의 수막새 기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基本的인 造形 特徵을 지닌다고 하겠다.

- ① 百濟의 수막새 기와의 무늬 構成의 主題는 연꽃무늬이다.
- ② 연꽃무늬 기와의 主流型은 素瓣蓮花文瓦類이다.
- ③ 연꽃무늬 기와의 支配的인 構成무늬는 素瓣蓮花文이고, 나머지는 이의 發展 또는 形式化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연꽃무늬 기와의 內區를 구성한 꽃잎은 8잎을 基本造形으로 하고 있다.
- ⑤ 수막새 기와의 外區의 테두리 구성은 이른바 무늬 없는 素文帶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百濟末期에 形成된 連珠文構成은 統一新羅와 日本의 古瓦文으로 繼承發展되었다.
- ⑥ 百濟의 수막새 기와는 凸形의 子房 構成을 基本型으로 하고 있다. 다만 素文瓦當의 경우는 子房 構成을 省略하고 있다.
- ⑦ 胎土는 대체로 細美하게 精選되었다.
- ⑧ 色調는 一般的으로 軟灰色을 띄고 있다.
- ⑨ 百濟 수막새 기와의 直徑은 그 平均値가 約 14.3cm로 나타나고 있다.
- ⑩ 그 밖에 巴狀文瓦當과 素文瓦當은 분명히 百濟 瓦當造形에서는 亞種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巴狀文기와 무늬의 變態는 百濟末期의 우수한 벽돌 工藝를 降게 했다. 우리는 瓦·塼文構成에서 巴狀文의 相反된 變遷造形을 보게 되는 것이다.

## II. 무늬 벽돌

百濟의 무늬벽돌로 代表되는 것에는 公州의 武寧王陵과 宋山里 6號墳을 조영한 벽돌과 扶餘發見의 忍冬·忍冬蓮花並列文 箱子形 벽돌, 그리고 扶餘 外里發見의 8種類의 方形무늬벽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公州 宋山里의 무덤벽돌과 扶餘 外里의 方形무늬벽돌로 區分하여 그 造形的 特徵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公州 宋山里의 무덤벽돌

百濟 武寧王陵을 造營한 벽돌은 그 裝飾構成의 무늬가 연꽃무늬를 주류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使用되는 位置와 面構成의 形態에 따라 몇 개의 형식으로 구분되고 있다.

길이모양의 벽돌과 작은모양의 벽돌의 양쪽 끝의 무늬 구성은 對角線이 교차되는 中心點에 小型的의 6잎 연꽃무늬를 浮彫한 것이다. 그리고 垂直壁體의 下端 3列의 작은모양의 벽돌은 優麗한 卍字形의 8잎 연꽃무늬와 4개의 空間에 洗鍊美가 넘치는 인동무늬를 구성 장식하고 있으며, 널길의 上端 작은모양벽돌은 거의 方形을 이루고 인공무늬를 省略한 연꽃무늬벽돌로, 이는 아아치(arch)형 천정을 만들기 위한 사다리꼴 모양의 것이다. 武寧王陵은 모두 이와 같은 연꽃무늬를 중심으로 한 무늬벽돌로 조영되었기 때문에 왕릉의 內部는 매우 神秘롭고, 壯麗한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아름다운 卍字形의 연꽃무늬는 그 彫刻技巧로 보아 百濟 연꽃무늬 수막새 기와의 編年研究에 絕對的인 基準이 되기도 한다.

또한 公州 宋山里的 百濟古墳群 가운데 제 6 호분은 東西南北壁에 각각 靑龍·白虎·朱雀·玄武의 四神圖를 그린 壁畫古墳으로도 有名한데, 이 무덤의 경우 연꽃무늬벽돌이 아닌 돈무늬(五銖錢文)로 벽돌의 表面을 구성한 것이 支配的이어서 공주 백제 무덤벽돌의 무늬변천 양식을 示唆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벽돌에서 銘文이 발견되고 있는데, 6號墳에서 「梁官瓦爲師矣」라는 사다리꼴모양의 연꽃무늬 벽돌은 아아치형 천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中國 南朝 梁나라의 瓦塼文化受容을 그리고 武寧王陵에서 발견된 「土壬辰年作」이라 세기 같은 모양의 벽돌은 王陵의 造營年代를 가름하는 歷史的 考證資料가 되고 있어 모두 귀중한 學術的 價値를 갖는 것이다.

또한 垂直壁面을 構築하는 벽돌의 側面에는 「中方」, 바닥벽돌에는 「大方」, 아아치天井構築用 벽돌에는 「急使」라는 銘文이 있어, 이들 벽돌무덤은 사전 設計와 벽돌의 計劃生産에 의한 것임을 示唆해 주고 있다.

## 2. 扶餘 外里出土의 方形벽돌

부여 외리 발견의 方形무늬벽돌은 그 무늬 구성의 特殊함에서 注目되는 바, 이는 山景文벽돌 2種, 蓮花鬼形文벽돌, 山景鬼形文벽돌, 鳳凰文벽돌, 蟠龍文벽돌, 忍冬蓮花文벽돌, 蓮花渦雲文벽돌 등 8種類인데, 모두 그 彫刻樣式이 부드럽고, 優雅하며, 百濟 造形美術의 精髓를 集約한 綜合 藝術品으로서 벽돌공예의 極致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山景文벽돌에서 左右對稱의 構圖를 통해 安定感을 주는 造形임과, 原始的인 風景畫法의 展開形式과, 또 다른 山景文벽돌에서 近代的인 遠近法의 適用을 볼 수 있으며, 寫實과 抽象의 兩面을 읽을 수 있어 注目된다.

鬼形文벽돌에서 半肉彫로 구성된 도깨비무늬의 全體構造로 보아 下體의 構成이 빈약해 보이나, 부드러운 曲線을 律動的으로 調和롭게 表現한 도깨비는 결코 도깨비 特有的인 魔力의인 感覺과 威容을 減少 또는 弱화시키지 않은 세련된 百濟 造形美術品이다.

忍冬蓮花文벽돌에서 10잎의 中肉한 연꽃무늬 안에 백제적인 流麗한 忍冬文을 장식하고, 外區의 테두리를 2줄의 가느다란 環文帶로 만들고, 그 안에서 잘 정제된 連珠文을 적절하게 장식한 構成美 넘치는 形態를 볼 수 있다.

蓮花渦雲文벽돌에서 百濟의 典型的인 연꽃무늬 構成의 寫實的인 특징과 方形무늬벽돌 特有的인 曲線的이고, 律動的인 特徵으로 된 圖案化된 구름무늬가 6世紀의인 具象技法과 7世紀의인 非具象의인 表現形態로 만나고, 하늘(구름)과 땅(연꽃)의 두 세계가 만났으며, 간결하면서도 調和와 均衡을 이루고 있어 새로운 벽돌무늬로 등장하여 百濟 造形美術의 發展過程을 說明하여 주고 있다.

鳳凰文벽돌은 구름 위를 힘차게 날으는 봉황의 형상이며, 그 모습은 매우 유연하고 우아하며, 머리부분의 사실적인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몸과 날개, 다리의 강조와 대담한 省略 등의 表現은 具象과 抽象, 柔軟과 強健 등의 調和로운 아름다움을 集大成한 造形文化遺産이다.

蟠龍文벽돌에서 龍 머리의 구성과 胴體의 비늘에서 사실적이고 精緻한 技法을 보이는가 하면, 胴體와 四肢 등에서 曲線的 表現과 強調된 技巧를 찾을 수 있고, 이 作品을 통하여 作家는 유연한 曲

線的인 造形感覺을 살리면서 그가 意圖하는 대로의 強健함을 制限된 空間에 綜合表現한 藝術的 產物임을 判讀할 수 있다.

이같은 부드러운 表現과 高度로 세련된 技術과 藝術感覺은 百濟의 瓦·塼遺品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造形特徵이라고 하겠다.